

절반도 못맞추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시중에 판매중인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의 성능이 천차만별인데다 일부 제품은 정확도가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성능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성능 평가실험을 진행했다.

간이측정기는 주로 건설현장, 배출사업장, 학교, 군부대 등에서 쓰인다. 무게가 50~100kg으로 별도 설치가 필요한 설치형은 가격이 400만~1800만원 정도, 3kg 안팎으로 공중전투부스 등에 부착할 수 있는 거치형은 80만~1300만원 수준이다.

광산탄방식을 통해 16개 간이측정기의 측정 정확도, 자료 획득률 등 성능 평가실험 결과 설치형 측정

환경부 성능평가서 측정기 정확도 '천차만별'

내년부터 성능인증제...미세먼지특별법에 포함

기 12개는 80% 이상 3개, 70% 이상 5개, 50~60% 3개, 50% 미만 1개였다. 거치형 4개는 70% 이상 1개, 50~60% 사이 3개였다.

정확도 70%가 채 안 되는 제품이 절반에 가까운 7개에 달한 가운데, 1300만원 하는 설치형 측정기는 48.3%의 정확도를 보여 80만원짜리 거치형(64.1%)보다 정밀도가 떨어졌다.

두 의원은 "미세먼지 측정기술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정확도가 7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측정기나 계측기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게 업계나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이번 조사대상이 나쁜 정확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선정된 것이어서 실

제 시판되는 측정기는 정확도가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실험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대기측정기 지침(Air Sensor Guidebook)을 참고했다. 지침은 용도와 정확도에 따라 국가측정용(90%), 개인노출 확인(70%), 모니터링 보안(80%), 고농도 식별(70%), 정보제공·교육용(50%) 등으로 나누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29일 환경법안소위를 열고 강 의원 등이 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에 송 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성능인증제 관련 조항을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제작·수입자는 환경부의 성능인증제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민들이 구입해 사용하는 센서방식 간이측정기는 정확도가 50%를 밑돌아 성능인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중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민들은 이르면 내년 4월경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두 의원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시민과 민간기관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능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사용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중국 최초로 부모 사후 4년 만에 자식 출생

중국에서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아들이 4년여 만에 대리모에 의해 태어났다고 영국 BBC 방송이 12일 중국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사망한 부부는 체외수정을 통해 수정된 난자를 냉동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수정란이 이번에 대리모를 통해 출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고 당시 수정란은 난징(南京)의 한 병원에 영하 196도의 액체질소 탱크 속에 보관돼 있었다.

친조부와 외조부는 냉동보관된 자식 부부의 수정란을 이용해 손자를 낳게 해달라고 법정 소송을 벌여 승리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아기는 지난해 12월 리오스의 한 대리모에게서 태어났다. 이 같은 사례는 중국 최초로, 태어난 남아의 조부모들은 대리모 출산을 위해 술한 난관을 극복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대리모를 이용한 출산은 불법이다. 따라서 수정란은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이 허용되는 리오스에서 대리모에게 이식됐다. 이 과정에서 어떤 항공사도 액화질소 탱크에 보관된 수정란의 이송을 거부해 수정란은 차를 이용해 리오스까지 옮겨졌다. 수정란을 이식받은 대리모는 중국에 와서 아기를 출산했다.

텐텐으로 이름붙여진 이 남자는 부모가 모두 숨져 친자 관계를 확인할 대상이 없어 중국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부모와 외조부모 4명이 모두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자가 그들의 혈육임을 인정했고, 그 결과 아이는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탈레반, 가즈니 주정부 청사 공격 18명 사망

탈레반이 12일 3명의 고위 관리와 15명의 치안 병력 생명을 앗아간 아프가니스탄 중부 가즈니주의 정부청사 건물 공격은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AP 통신에 전화를 걸어 가즈니 주도 가즈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쿠자 오마리 구역에 위치한 정부청사 공격을 자신들이 했으며, 쿠자 오마리 구역의 모든 보안초소들을 탈레반이 장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아프간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쿠자 오마리 구역의 행정수반, 정보책임자, 경찰 부책임자 등 3명의 고위 관리가 사망자에 포함됐다는 아프간 정부 측 생명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日경찰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사망

일본에서 파출소 근무중이던 경찰관이 동료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NHK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경 시가(滋賀)현 히코네(彦根)시가 와세역 앞의 파출소에서 머리와 등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경찰이 발견됐다. 이 경찰은 바로 이송됐지만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현 경찰청은 11일 아침부터 함께 근무했던 19세 순경이 권총으로 쏜 것으로 보고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수사했다. 수사를 시작한 8시간여 만인 12일 새벽 5시 인근 지역에서 체포된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나를) 매도해 총을 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제리 군 수송기 추락...탑승객 257명 사망

알제리 군용 수송기의 추락으로 탑승자 257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기는 알제리 모로코 분쟁지역인 서사하라 인근의 띠도우프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BBC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1일(현지시간) 군인과 군 가족들을 가득 실은 러시아제 수송기 일루신 II-76이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보우파리크 군기지를 이륙한 직후인 오전 7시50분 쯤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BBC방송은 알제리 군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며, 이번 사고는 알제리 최악의 항공사고라고 전했다. 알제리 국방부는 사고 수송기가 서사하라 지역의 알제리 모로코 국경 인근의 띠도우프로 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사하라 지역은 모로코와 알제리 간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서사하라리는 지난 1975년 스페인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후 모로코가 대부분을 통치하고 있다.



친구야, 봄이래. 원만한 봄날씨를 보인 12일 제주도 조천읍 남조로 인근 유채꽃밭에 어린이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

첫 정부합동 추도식

교육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지원하는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16일 오후 3시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가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렸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안산시의 추모공원 조성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61명의 희생과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추진된다고 12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 주요 인사, 단원고 학생, 안산시민 등 5000여 명 이상의 추모객들이 영결·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 유가족 측의 협의에 따라 16일 오전 9시 정부 합동분향소의 위패와 영정을 영결·추도식의 제단으로 이송하는 진혼식이 열렸다.

세월호 참사 경위보고, 정부대표 조사, 추도사, 종교의식, 조가 등이 오후 3시부터 이어진다. 추도영상 상영, 추도시 낭송, 추도 노래, 편지글 낭독, 정부 대표와 유가족의 헌화 및 분향을 통해 추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영결·추도식 이후에는 참석한 시민들의 헌화와 분향이 이어진다.

뉴스스

국내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국인이 검사를 원하는 수입식품을 선정해 검사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식품도 집중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통관단계 뿐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도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 설문 등을 통해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품목을 선정해 검사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부

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해 검사한다.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시행하고 인터넷구매대행업이나 신고대행업, 보관업 등 신설 업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신설 업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한다. 입산·수유부 식품이나 특수의료

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도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품목이었다.

성 기능 강화, 근육 강화,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해 위해 우려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은 국내 유통을 차단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보따리상이 반입하는 식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 단속도 강화된다.

뉴스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양 건강검진

임 검진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 항목	검진 전	검진 후
심혈관 질환 발생률	42%p 감소	18%p 감소

*검진에는 건강검진이 포함되거나, 미리 미리 건강 챙기세요.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